

전남도, 첨단·전략산업 2년 만에 20조 투자유치

30조 목표 '67% 조기 달성' 국내·외 기업 294개 유치 정부·기업과 협력 제도 개선 "비교우위 산업 공급망 강화"

전남도가 민선 8기 들어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30조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한 결과 2년 만에 2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4년 목표치를 2년 내에 67%까지 조기 달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어려움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

전남도는 기술 수준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맞춤형 입지 제공 등으로 차별화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2월 현재 국내외 기업 294개를 유치해 총 20조54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내 1만675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의 입지

규제 완화는 정부,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사례로 꼽힌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4조4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했고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냈다.

'30조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목표 전략과 방향도 주요했다.

이차전지 양극재·리튬 등 핵심 소재, 데이터센터, 수소 등 첨단·신성장산업 분야에만 11조8100억원의 투자가 몰려 총 투자유치의 57.5%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차별화한 투자 환경과 장점, 지원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투자유치활동(IR) 및 핵심 규제 해소 등도 빈

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힘을 쏟고 이를 통해 특구지역 핵심 앵커(선도)기업의 지역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 첨단기업 투자는 늘고 있지만 산업단지 분양률이 98%로 입주기업에 제공할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주 에너지·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 광양 세풍·순천 해룡·무안 케이(K)-푸드 일반산업단 등 입주 수요와 개발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첨단·신산업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지역 투자유치 보조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입지 보조금은 분양가의 20%, 시설 보조금은 20억원 초과 투자금의 10%로 각각 50억원씩 최대 100억을 지원하고, 신성장·첨단기업은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추가해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 공급망과 기반시설, 전략적 세일즈 투자유치 활동, 차별화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소부장 특화단지 우수 일자리 '산업부장관상'

광주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일자리정책으로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와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선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지정된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앵커기업인

LG이노텍·한국알프스와 참여기관·부품 기업이 수평적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개를 만들어냈다.

또 핵심기술 국산화율을 50% 이하에서 80%까지 개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1월10~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지자체 64곳 등 71개 기관이 참여한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우수성과 사례를 전시했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자율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확대

전남도가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2030년까지 도내 전체 800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 나눔대회'를 열어 올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구호 아래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 화합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이날 성과 나눔대회엔 김영록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사회단체장, 으뜸마

을 대표와 주민, 관계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활동 영상 상영, 우수 시·군 시상, 유공자 표창, 우수마을 사례 발표 순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 시·군 시상에선 종합평가 결과 곡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대상을 받았다.

나주시와 해남군은 최우수상, 보성군·영광군·완도군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청정전남 실현을 위해 사업 활성화에 헌신한 공무원 6명과 민간인 22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하고,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75개 마을에는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했다.

백간재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90억 연내 지급

전남도가 202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190억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114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원을 12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1만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000ha로 국비 114억

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원의 54%를 차지하는 최다 규모에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70만원, 과수는 70만원~140만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65만원~13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의 자체 추가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로 지급면적은 약 1만4000ha다. 1만2000여 농가에게 76억원을 지급한다.

최항지 기자



고흥 녹동신항, 제주연계 물류센터 설치 협약 오영훈(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가 1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고흥 녹동신항, 제주연계 물류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20일 라페스타 웨딩홀 정부 지원정책 등 소개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20일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2023년 상인워크숍'을 개최한다.

광주시상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통시장 상인,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전통시장·상점가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동절기 난방기구 전기안전 점검 교육, 상인 행동요령, 화재발생시 응급조치 및 대처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지원정책,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책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또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7명의 유공 상인들에게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참여 상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0개 시장, 32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3개 시장, 24억원) △특성화 사업(6개 시장, 19억원) △상권리네상스사업(3개 권역, 총사업비 260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생활문화 아트벙커' 성과공유회 성료

지역주민들 소통 역할 '특목' 체험부스·공연·전시 등 다채

올해 처음 선보인 '생활문화 아트벙커'의 활동기록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아트벙커 운영자 및 참여자, 자치구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문화 아트벙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문화 아트벙커'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강습·공

연·전시·연습·발표 등 주민 주도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해동안 지역주민 간 소통과 일상 속 생활문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24개소 아트벙커 행진 △2023년 성과 공유 △아트벙커 공연 및 전시 △보이는 라디오 온(ON) △포토존 △체험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아트벙커 행진을 시작으로 우쿠렐라, 훌라덴스, 연극, 판소리, 숲가락 난타 등 9개 아트벙커 팀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

을 뽐내는 공연이 이어졌고 종이공예, 드로잉,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돼 볼거리를 더했다.

보이는 라디오 온(ON) 시간에는 시민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광주시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했다.

특히 24개의 벙커별 부스가 마련돼 한 해 동안의 성과 공유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자성이 퀴즈, 즉석사진 현상 등 깜짝 이벤트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트벙커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아트벙커를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아트벙커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